

# 광주 떡 산업 年매출 500억대로 키운다

(2010년까지)

### 창역떡집, 국내 최대 자동화생산설비 가동... 하루 20t 생산 市, 다양한 퓨전제품 개발 등 600여 업체 매출 신장 추진도

광주에 하루 20t의 떡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자동화 생산설비가 본격 가동되면서 떡산업이 양산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역 업체들은 이와 함께 다양한 퓨전제품 개발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떡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적 떡 생산업체인 '창역떡집'은 북구 중흥동에 국내 최대 규모(연면적 4천950여㎡)의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23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 설비는 하루 2만kg의 떡을 생산할 수 있으며, 기존 동명동 시설은 판매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창역떡집은 그동안 전통식품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위생 설비에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기준을 적용, 떡의 안전성 문제를 해소했다.

특히 현장에 '떡 체험관'을 개설해 관광객들에게 '떡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건물의 관에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사용해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43년 전통의 창역떡집은 광주시가 우리쌀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성하고 있는 7개 떡 제조업체 가운데 하나. '시루연'과

'떡보의 하루' '해오름' '명지원' 등 떡 생산업체들은 광주의 전통 민속 떡 공동 브랜드인 '예담은'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퓨전 떡 제품 생산과 대형화 및 고급화로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해오름떡전문점은 울퉁퉁 찰떡, 흑미영양떡 등 8종의 전통 떡 4.3t을 미국에 수출했다.

'떡보의 하루'는 금남로점과 금호점에 이어 말바우점을 여는 등 전국에 110여 곳의 체인점을 두고 있다. 차별화된 맛과 세련된 인테리어, 독특한 서비스 전략으로 프랜차

이즈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광주시 '떡산업육성사업단'도 지난 달 상무대와 공군부대 등에 단체 급식용 떡을 공급하고, 육군 제31사단과 내년 4월까지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떡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떡 생산업체는 모두 650여개로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전국 시장 점유율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0년까지 500억원대 매출을 목표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제품 생산과 국내외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화 설비 완공으로 광주의 전통떡인 '예담은'을 첨단 기법으로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떡산업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태리 명품 도자기 '투스카니'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20일부터 24일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이태리 생활문화 스타일을 제안하는 '매종 드 신세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장인의 숨결이 살아있는 170년 전통 이태리 명품 핸드메이드 도자기 투스카니. <광주신세계 제공>

## 韓銀 “날뛰는 물가 잡아라” 총력전

### 지급준비율 인상·은행 대출한도 축소... 가격담합 불공정거래 철폐도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뿐 아니라 예금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폐를 가하기로 했다.

22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전방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통적인 방식인 기준

금리 인상 외에 일부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한은은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효과가 가장 크고 정통의 방식인 금리를 올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만 경기가 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부작용이 덜한 기준율 인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준비율은 은행들이 한은에 예

치하는 자금의 수신액 대비 비율로, 이 비율이 올라가면 은행의 대출여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시중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다.

한은 관계자는 “내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금리 외에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에서 새롭게 선보인 로체 이노베이션과 수입차에 대한 비교시승회가 지난 20~21일 제주에서 열렸다. 사진은 신형 로체가 제주 일원을 누비는 모습.

## 기아 로체 이노베이션 ‘성능 대결’

### 제주서 캠리·어코드 일본차와 시승 행사

기아차의 중형 신차 로체 이노베이션이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 등 일본의 대표 브랜드 제품과 성능대결을 했다.

기아차는 20~21일 제주에서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로체 이노베이션 LEX 10대를 동원해 도로 시승을 진행하고 제주 경마공원 주차장에서 도요타 캠리 2.4, 혼다 어코드 2.4와 비교시승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로체 이노베이션은 2005년 11월 로체 출시 이후 3년만에 선보

이는 새 모델로 18개월간 700여 명이 개발에 투입됐으며 디자인 작업은 기아차 디자인 총괄 담당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이 총괄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로체 이노베이션이 어코드와 캠리에 비해 엔진 성능과 제원이 거의 동급”이라며 “비교 시승을 통해 핸들링과 급제동 커브 등 주행성능에서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 모바일 게임업체 ‘인터세이브’

### 러와 50만달러 수출계약

광주지역 모바일 게임업체인 '인터세이브(대표 이갑형)'가 러시아에서 50만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9일 일정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유럽 시장 개척에서 '인터세이브'사가 러시아의 모바일게임 유통회사인 'UFD'사와 50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인터세이브'는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주관한 2007년 7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된 이갑형 대표가 운영하는 호남 유일의 모바일 게임업체다.

'인터세이브'가 그동안 개발한 게임은 '주몽', '굴러썰아보사', '미니게임 산타' 등 50여종에 달한다. '인터세이브'는 지난 2005년 광주시가 주최한 WAF(웹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산타후련소녀'를 모바일 게임인 '미니게임 산타'로 개발해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다.

/윤정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기아차 노조 올 임단협 25~26일 찬반투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2008년 임단협 및 단체협약과 관련, 25~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3만4천690원(8.9%) 인상 ▲매달 통상급의 300%를 생계비 부족분으로 지급 ▲휴가비·유류비·명절 선물비 등 90만원 인상(현재는 230만원) ▲주간 연

속 2교대제 실시와 임금하락은 생산직 월급제 전환 ▲매년 사업계획과 신차 개발계획, 월별 판매전략 등을 노조에 통보할 것 ▲쓰렌토 후속모델(프로젝트명 XM) 북미공장 생산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원어인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 전남농협, 청소년 대상... 내달 15일 접수마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원어인 영어강사와 함께하는 친환경 농사체험을 통해 영어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하기 위해 '2008 팜스테이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친환경 농촌체험 학습을 하면서 재미있고 다양한 농촌체험영어(Farm-Stay English)를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로, 전국에서 전남본부가 최초로

도입했다. 캠프는 다음달 28일부터 8월1일까지 나주 노안면 이슬촌마을에서 운영되며, 참가비는 도시 어린이들의 농촌체험을 위해 55만원 가운데 25만원을 농협에서 보조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40명에 한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남본부 농촌지원팀(062-220-7725)으로 신청하면 된다./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대우건설 호남지사 전주 → 광주 이전

대우건설 호남지사가 수주업무 등 사업확대를 위해 전주에서 광주로 이전한다. 2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각종 대규모 공사에 대한 수주확대 등을 위해 호남지사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로 옮길 예정이다.

대우건설 호남지사는 23일 상무지구 내 한국토지공사 인근의 골든빌 2층에 입주한 뒤 오는 30일께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번 호남지사의 광주이전은 '2012년 여성 세계박람회'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보존식 관리 지침(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

**우수 국내 기술자의 자존심, 최첨단 전국 S/S시스템**

**국내유일 냉동보존식전용 디지털 냉동보존고**

**대리점** 순천, 여수, 광양지역 **대리점**

**모 집** 목포, 나주, 무안지역 **대리점**

**푸른유통**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508-6739